






5 panpan8

백준의 박(현)준  



등수	8337
맞은 문제	244
맞았지만 만점을 받지 못한 문제	1
시도했지만 맞지 못한 문제	2
제출	384
맞았습니다	270
출력 형식	3
틀렸습니다	68
시간 초과	15
메모리 초과	1
출력 초과	12
런타임 에러	13
컴파일 에러	2
학교/회사	동국대학교 멋쟁이 사자처럼 42 Seoul



 [프로필 편집](#)

panpan8 

Gold V 800 Gold IV 승급까지 -150


 동국대학교  멋쟁이 사자처럼, 42 Seoul

242문제 해결 1명의 라이벌

백준 랭킹 8337위, solved.ac 랭킹 15247위.

중간 공백기가 좀 길긴 했지만 대략 1년이 걸렸다. 그래서인지 solved.ac는 오히려 랭킹이 내려감...

<https://blog.naver.com/hyeonjun7/222271526695>



[BOJ] 실버 5티어 달성
백준 랭킹 33081위, solved.ac 랭킹 14029위. 해...
blog.naver.com

1년이 지나고 나니 백준과 solved.ac에 깃허브처럼 잔디가 생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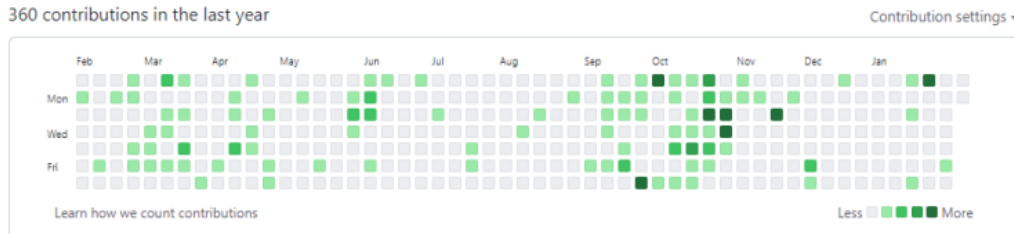
잔디는 활동 기록을 칸으로 나타낸 것인데, 활동한 날마다 해당 날짜 칸이 초록색으로 채워진다.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진한 초록색이 된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채워진 것이 잔디 같아서 잔디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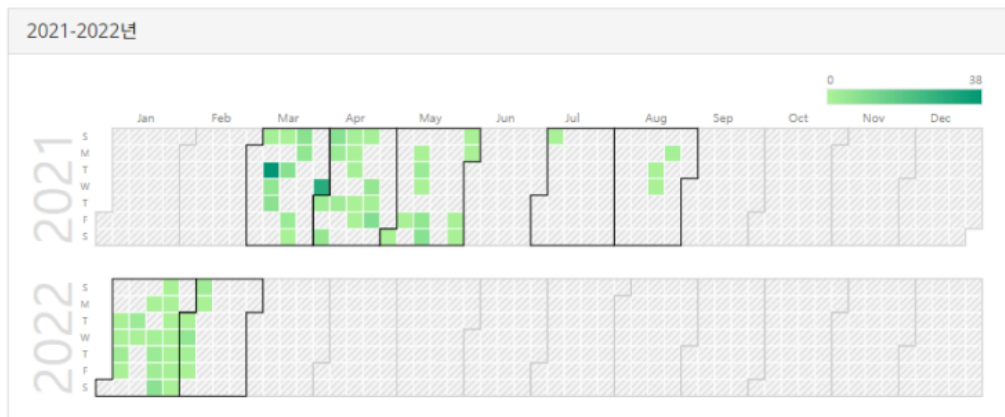
초록색으로 가득 찬 잔디는 꾸준히 공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기에 잔디 관리를 잘 하라고들 이야기한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깃허브에 알고리즘 레포지토리를 만들고 매일 알고리즘 문제와 정답을 올려 잔디를 채우는 사람들을 종종 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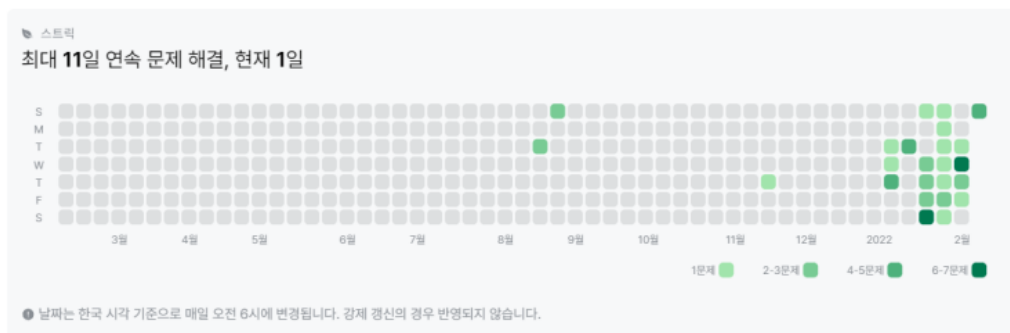
그걸 보고 백준과 solved.ac에서 해결한 문제 수만큼 진한 초록색으로 채워지는 잔디를 만든 듯하다.



깃허브 잔디



백준 잔디



solved.ac 잔디

백준 골드까지 오면서 느낀 점을 좀 적어보려고 한다.

1. 알고리즘 공부는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책이든 강의든 알고리즘 공부 방향을 잡아줄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나는 쉬운 것부터 차례로 풀어 나가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solved.ac 기준 낮은 레벨 문제부터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풀어왔다.

이건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다양한 알고리즘 문제 해결 방법(DFS/BFS, DP 등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

대학 수업 때 제대로 좀 들어놓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dp, dfs 같은 변수/함수 명의 의미를 모르니 다른 사람 답안과 내 답안을 비교해 볼 때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알아차리기도 힘들었다.

좋은 공부 방법은 그날 그날 배운 알고리즘 문제 분류에 해당하는 문제를 낮은 레벨부터 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알고리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골라보았다.

세 권 모두 내가 끝까지 다 읽고 이해한 책들이 아니라서 추천해도 되나 싶긴 하다. 그냥 참고만 했으면 좋겠다.



대학교수님이 알고리즘 수업 때 교재로 사용하신 책이다.

연습문제도 많고 설명도 잘 되어있다.

다만 답지는 따로 없는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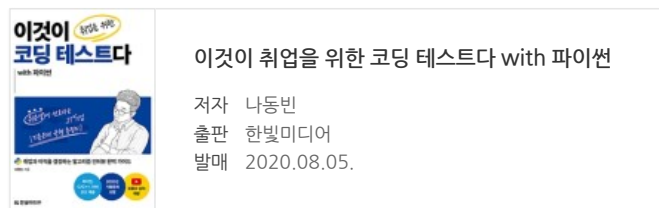


<https://book.algospot.com/>

예전에 이 책으로 스터디하다가 스터디가 중간에 흐지부지되어버려서 끝까지 못 읽었다.

알고스팟 온라인 저지에서 책의 모든 연습 문제들을 채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고 들었다. 나에게 좀 어렵게 느껴진 책이다.



최근에 스터디하면서 강의만 보고 있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유튜브 강의와 함께 책으로 공부하면 초보자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물론 내가 위 두 책을 거쳐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쉽다고 느낀 것일 수도 있다.

파이썬 이외의 언어로 푼 답안도 보여주는 게 꽤 괜찮았다.

알고리즘 자체가 중요하고 언어는 표현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2. 좋은 풀이를 보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된다.

이건 내가 지금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수학 문제집 풀 때 너무 풀기 어려운 문제의 해설서를 보면 내가 푼 것 같지 않고, 치팅/컨닝을 한 것 같아 기분 좋지 않았다.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도 비슷해서, 나는 웬만하면 처음으로 풀 때 일단 혼자 힘으로 푼 다음 그 문제의 다른 사람의 풀이를 찾아보는 편이다.

좋은 풀이를 많이 보는 건 알고리즘 고수에게 직접 배우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설명하기도 어렵게 간신히 제한에 맞춰 푼 긴 코드를 누군가는 훨씬 여유롭게 짧은 코드로 작성했을 것이다.

그걸 보고 나와 비교해 보며 어떤 점에서 다른지, 어떤 의도로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그것이 나에 비해 얼마나 효과
적인 것인지 충분히 이해한 다음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복잡도가 낮을수록, 알아보기 쉬울수록 좋은 코드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수학 문제집에서 정답이 맞은 문제는 풀이 보는 것을 스킵 했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거다.
맞은 문제도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부해서 나쁠 것이 없다.
수학이나 알고리즘 문제나, 사실 넓혀보면 다른 어떤 교과 문제에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겠다.
걱정되는 일,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세상 태평하다.
그저 내일의 내가 걱정일 뿐...